구례군, 국민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

저소득층 무주택 100세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구례군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구례읍 봉서리 일원인 한국전력공사구례지사 옆에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서민아파트를 건립하여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민선7기 김순호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6,430㎡의 대지에 지상9층 2동으로 100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면적은 22㎡형 56세대, 26㎡형 12세대, 33㎡형 28세대 , 48㎡형 4세대의 4가지 형태의 주거시설로 건립되며 관리사무소,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 복리시설도 갖추게 된다.

총사업비는 112억 원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비의 40%인 국비 45억 원을 지원받아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0% 이하 소득자가 대상이며, 2020년 5월부터 입주자를 모집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으로 관내 소외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준공까지 완벽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지적재조사 예정 지구 주민설명회

곡성군이 최근 내년에 실시할 곡성 신기지구 및 죽곡 용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곡성군은 991필지 약 391천㎡에 대해 내년도에 지적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사업 지역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목적과 배경, 절차,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곡성군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보성군, 농업유산 발전방안 모색 현장토론회 개최

보성군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인 '보성전통차농업'을 농촌을 지켜갈 미래 천년사업으로 육성하고, 세계농업유산 등재 가치를 찾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손잡고 나섰다.

보성군은 봇재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보성차 농업유산의 특성과 가치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유산 전문가, 차농가 및 지역주민 50명과 함께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시험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농업유산 전문가인 성균관대학교 정기호 교수, 배재대학교 최종희 교수, 국립농업과학원 안옥선 연구관, 한국농어촌공사 백승석 차장의 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보성전통차농업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서 지역 차농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유산의 동적보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농업유산 자문위원인 성균관대학교 정기호 교수는 "보성차 농업유산의 독특한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농업 유산을 뛰어넘어 세계농업유산으로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안옥선 연구관은 "살아있는 유산, 지속가능한 농업유산의 보전과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으로서, 수많은 농업유산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해 농촌가치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제34회 화순 적벽 문화축제 개최

12일부터 이틀 간

화순군이 오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이서면 커뮤니티센터와 적벽 망향정 일대에서 '명승 적벽 1박 2일 힐링 여행'을 주제로 제34회 화순 적벽 문화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첫날인 12일에는 제2회 풍류대전 전국 난타경연대회, 사물놀이, 개막식, 축하 공연, 풍류놀이 체험 등이 펼쳐진다.

제2회 풍류대전 전국 난타경연대회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이메일(gk0926@hanmail.net)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화순적벽문화축제위원회(☎062-265-50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배부는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다.

둘째 날에는 풍류놀이 체험, 느티나무 작은 음악회, 열린 무대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그밖에도 각 마을 먹거리를 판매하는 향토음식 판매장, 농?특산물 판매행사, 적벽 옛 사진 전시회 등은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농업회의소, 선진지 견학 실시

담양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할 '담양군농업회의소'에서 최근 선진지 견학을 위해 경북 봉화군농어업회의소를 방문했다.

군에 따르면 담양군농업회의소의 성공적인 개소와 운영활성화를 위해 최근 읍면별로 산업담당과 이장단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봉화군농어업회의소와 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읍면순회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회의소 홍보와 회원모집에 나선 담양군농업회의소의 성공적인 출발과 2020년 운영 방향과 사업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화군은 현재 국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15개소의 농업회의소 중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농업 소득 향상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며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는 등 농업인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농협이 아닌 농업회의소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곳으로 담양군이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6차산업혁신농업지원센터 내 마련될 농산물홍보판매장의 운영방향을 잡는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수시, 수확기 농기계 임대사업 진행

여수시는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임대사업을 지속하며 5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휴일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문을 연다.

출고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고 반납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다.

농기계 임대료는 5천 원부터 23만 원까지 기종에 따라 다르다.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는 무상으로 운송해 주며, 농기계 조작과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사전에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659-4466)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영광군, 청년 싱크탱크 운영보고회 개최

영광군은 지난 1일 영광읍사무소 3층 소회의실에서 청년 싱크탱크 위원 등 30명이 참석하여 청년 싱크탱크 2019년 하반기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교육, 문화, 복지, 일자리 4개 분과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청년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또한 2020년 싱크탱크 활동계획과 운영방향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총 45회의 정책의제 발굴회의를 통해 청년 역량강화사업, 마케터 및 기획자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의 정책의제를 제안했다.

청년 싱크탱크는 10월 말 청년정책 의제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팀 6팀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11월에는 청년활동 결과 발표회를 열어 그간 진행한 정책의제 및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